

# 『건강 서울 36.5』 프로젝트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리고 건강한 서울을 위해 건강격차 해소, 시민과 환자 권리보장, 빈틈없는 의료안전망 마련하고 민간자원과의 협력을 통한 공공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확대하고자 서울시 중장기 공공보건의료 정책개발과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I

## 추진 배경

### 1 서울시 건강격차와 건강수준 현황

#### 1-1 자치구별·동별·권역별 건강격차 심화와 의료취약계층의 증가

- 서울시 사망률은 지속적 감소하지만 자치구별, 동별 사망률 격차는 커짐**
  - 사망률 추이 : 566명('00년) → 394명('09년)
  - 기대여명 추이 : 71.6세('00년) → 76.4세('09년)
  - 자치구 사망률(인구10만명당) : 서초구 335명(최저)에 비해 중랑구469명(최고)임
  - 주요 질환의 동별 사망률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동에서 지속적으로 낮음
    - 표준화사망비가 가장 낮은 1분위에 속하는 동의 74%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집중
- 건강취약계층의 지속적 증가와 질병의 사회계층간 건강격차 심화**
  - 장애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증가함
    - 장애인 증가 : 324,560명('06년) → 401,638명('09년)
    - 독거노인 증가 : 148,015명('06년) → 199,559명('09년)
    - 거주 외국인 263,026명('09년)으로 '06년 대비 50.3% 증가
    - 다문화가정 자녀 2,259명('08년)으로 3년 사이 2배 이상 급증

- 기초생활수급자의 고혈압유병률은 일반시민보다 2배이상 높음
  - 고혈압 유병률(인구100명당) 29.5명이며 복합질환자가 많음
- 소득 및 교육수준에 따라 질환의 유병율과 건강위험행태에서 격차가 있음
  - 직업간 고혈압 유병율 : 화이트칼라 5.8명, 블루칼라 13.5명, 무직 33.2명
  - 소득간 흡연률 격차(30-64세, 남) : 10.2%p('01년) → 33.3%p('10년)
  - 교육간 자살률 격차(30-64세, 남) : 44.9%p('01년) → 119%p('10년)
- 흡연, 비만, 음주, 건강검진 등 건강위험행태에 대한 지역 간 격차 있음
  - 지역간 흡연률 격차 : 동남권 21.9%, 서북권 24.1%
  - 지역간 건강검진률 격차 : 동남권 60.7%, 서북권 55.9%

## 1-2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문제 접근 필요성 증가

### 출산연령 증가에 따른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증가

- 고령임신 : 3.84%('02년) → 4.94%('10년)
- 저출생체중아 증가 : 3.84%('02년) → 4.94%('10년)

### 아동·청소년 건강생활 실천 감소와 높은 치아우식증 지속

- 아침결식(27.1%), 운동실천(29.7%) 등 서울시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습관 감소
- 아동 비만을 지속적 증가추세 : 9.4%('02년) → '14.7%('09년)
- '97년부터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에서 빈발 질환은 충치임(1위)

### 성인 만성질환자 증가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성 질환 증가

-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의 인지율은 증가하였으나 조절률은 낮음
  - 유병률 : 고혈압 28.0%('05년) → 30.7%('09년), 당뇨병 9.1%('05년) → 9.6%('09년)
  - 조절율 : 고혈압 38.0%('07년), 당뇨 27.1%('08년)
- 치매 유병률 8.2%로 현재 77천명에서 '20년에는 120천명으로 추계
- 80.7% 노인이 만성질환 가지며 27.8%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짐
- 암 발생률 인구10만명당 273.8명('07년)으로 전국 268.5명보다 높음

## 1-3 검진 후 건강관리체계 부재와 시민건강관리 관심 증가

### □ 건강검진률 증가 등 건강에 대한 시민 관심 증대

- 건강검진률은 추세이고 질환 조기 발견과 건강위험행태 등에 대한 관심 커짐('10년)
  - 일반 건강검진 수검율이 46.2%('04년)에서 62.8%('10년) 증가함
  - 수검률은 전국에서 제일 낮고 영유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률도 전국 평균보다 낮음
- 암, 심뇌혈관질환은 전체 사망 절반을 차지, 선형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 관리가 중요
  - 고혈압유병률: 28.0%('05)→30.7%('09), 당뇨유병률: 9.1%('05)→9.6%('09)
  - 심뇌혈관 질환의 경우 생활행태개선을 통해 80%이상 예방 가능함(WHO, '05년)
  - 장기간에 걸친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여 자가관리에 대한 시민 관심이 커짐

### □ 건강검진 사후 관리체계가 미흡

- 건강보험공단이나 검진의료기관 사후관리는 담당자 전문성 부족으로 일회성으로 그침
- 보건소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검진 자료의 공유가 원활치 않아 기존사업에 단순 연계로 그침

### < 분석 결과 요약 >

- ◆ 사망률 감소 및 기대여명 증가로 시민건강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자치구별·동별·권역별 건강격차 심화와 의료취약계층의 증가  
⇒ 건강취약지역에 대한 실질 건강격차해소 건강정책 필요,  
증가하는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선택적 집중적 지원 체계 요구
- ◆ 인구 집단별, 연령대별 건강문제 우선순위에 따른 접근이 요구되고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음  
⇒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및 질병 관리를 지원하는 체계 필요
- ◆ 건강에 대한 시민 관심 증대되나,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키워주는 서비스 부족  
⇒ 건강검진, 건강증진, 질병예방등에 대한 시민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필요

## 【 서울시 건강격차 현황(지역별, 건강수준별) 】

### 1. 사망률 격차

#### ○ 추이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서울	566	553	530	511	489	471	453	432	414	394

#### ○ 구별 사망률 격차 추이

구분	2000년				2009년			
	최고	최저	격차	비율	최고	최저	격차	비율
사망률	621	458	163	35.6%	437	305	102	43.3%

#### ○ 교육수준별 사망률 격차 추이(30-64세)

구분		2000년			2010년			격차변동
		중졸이하	대졸이상	격차	중졸이하	대졸이상	격차	
사망률	남	919	323	595	877	205	672	12.9% ↑
	여	262	122	140	346	95	251	79.3% ↑

### 2. 평균수명 격차

#### ○ 구별 평균수명 격차 추이

-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평균수명 평균이 하위 5개 자치구(강북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간의 격차

구분		2000년			2009년			격차변동
		강남3구	하위5구	격차	강남3구	하위5구	격차	
평균수명	남	74.23	70.53	3.70	78.93	75.08	3.85	4.1% ↑
	여	80.65	78.66	1.99	83.90	82.41	1.49	25.1% ↓

#### ○ 교육수준별 평균수명 격차 추이(30세)

구분		2000년			2010년			격차변동
		중졸이하	대졸이상	격차	중졸이하	대졸이상	격차	
평균수명	남	36.1	46.3	10.2	37.7	50.3	12.6	23.5% ↑
	여	48.1	53.0	4.9	49.5	55.6	6.1	24.5% ↑

### 3. 건강행태 격차

#### ○ 흡연율 교육수준별 격차(30-64세, %)

구분		2001년			2010년			격차변동
		고졸이하	대졸이상	격차	고졸이하	대졸이상	격차	
흡연률	남	64.8	55.4	9.4	59.3	42.6	16.7	77.7% ↑
	여	4.3	2.5	1.8	6.0	2.2	3.8	111% ↑

#### ○ 흡연률 소득별 격차(30-64세, %)

구분		2001년			2010년			격차변동
		저	고	격차	저	고	격차	
흡연률	남	65.8	55.6	10.2	56.6	43.0	13.6	33.3% ↑
	여	4.7	3.4	1.3	6.0	2.2	3.8	192% ↑

#### ○ 자살률 교육수준별 격차(30-64세, %)

구분		2000년			2010년			격차 변동
		중졸이하	대졸이상	격차	중졸이하	대졸이상	격차	
자살률	남	53.7	8.8	44.9	125.1	26.8	98.3	119% ↑
	여	9.4	4.4	5.0	97.5	16.4	81.1	1522% ↑

#### ○ 자살률 교육수준별 격차(65세 이상, %)

구분		2000년			2010년			격차 변동
		초졸이하	중졸이상	격차	초졸이하	중졸이상	격차	
자살률	남	61.9	31.9	30.0	138.4	84.8	53.6	78.6% ↑
	여	17.1	13.1	4.0	49.5	21.0	28.5	612.5% ↑

## 2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현황

### 2-1 서울시 총 병상의 4.14%만 시립병원에서 제공

#### □ 서울시 전체 의료기관은 15,610개소, 병상수 79,772개임

- 종합병원 57개소이고 병상수는 33,611개임('11년)
- 서울시 병상수(1,000만명당) 7.3개('10년)로 OECD국가 평균 병상수 5.34개('08년)와 비교시 양적으로는 충족됨
- 의료인력(의사와 간호사)은 OECD국가 평균보다 낮음

#### □ 서울시 총 병상의 약 4.14%만을 시립병원에서 공급함

- 서울시 총79,772병상 중 시립병원은 3,300병상을 운영 중임
  - 시립병원 13개 중 9개 병원은 서울, 4개 정신병원은 경기도에 소재
  - 시립병원 총 4,648병상 중 서울에 있는 것은 3,300병상임

#### □ 시립병원 이용자는 인접 지역 주민이 대부분을 차지함

- 일반적으로 시립병원이 위치한 지역의 인접에서의 이용이 많음
  - 서울의료원('10년, 강남구) : 강남구 41%, 송파구 24%, 서초구 5%
  - 동부병원('10년, 동대문구) : 동대문구 37%, 성동구 13%, 성북구 8%
  - 보라매병원('10년, 관악구) : 관악구 50%, 동작구 20%, 금천구 7%
- 특화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북부병원, 서북병원, 장애인치과병원의 경우도 서울전역을 관할하지 못하고 인접지역 주민의 의료이용이 많음

#### □ 건강생활권역별 공공의료기관분포의 차이가 있고 필수의료제공 제한적임

- 서북과 동남권에는 시립병원이 없으며 노인병원도 불균등분포
  -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을 때 공공병원의 공백지역이 발생
  - 서북, 동남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공공종합병원(500병상 이상)의 부재  
(동북-서울의료원, 서남-보라매병원)

- 수익은 낮으나 공공성이 높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응급, 어린이, 감염병, 정신질환, 재활)에 대한 지역적 불균형이 큼

## □ 시립병원 운영 및 평가에 대한 관리체계 부재

- 시립병원 운영 보조금, 의료장비 구매계약, 의료장비관리 등 운영과 관리 문제점 지속 지적됨
- 시립병원 평가가 매년 실시되고 있으나 경영효율성과 공공성에 대한 평가체계가 미흡하고 전문적이지 못하며 그 결과에 대한 환류 되지 못함
- 또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한 의료의 질 평가 결과 통보·공개를 통해 의료 제공자들의 지속적인 질 개선 활동을 지원하여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나 평가가 시립병원 중 일부만 실시하고 있음

## 2-2 보건소는 인구 21만명당 1개소로 인프라 취약

### □ 서울시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취약, 서비스의 낮은 접근성

- 의원수 대비 공공보건기관의 낮은 비율과 공공보건기관의 높은 관할인구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서비스 등 미충족
  - 의원 수 대비 공공보건기관 비율 : 서울 0.66%, 전국 12.6%
  - 공공보건기관 1개소당 관할인구 : 서울 21만명, 전국 1만4천명

### □ 시민의 보건의료욕구 증가하였으나 민간 제공 제한적

- 치료중심 민간의료기관은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및 질환관리 서비스 미흡
  - 민간의원 방문목적의 92.3%가 질병치료임(국민건강영양조사, '05년)
- 보건의료시설확충과 건강증진서비스제공에 대한 시민 요구도 높음  
(통계청, 서울시민의 사회조사 결과, '11년)

-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 보건의료시설 44.6% 응답함

국공립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공원 유원지	보건의료 시설	사회복지 시설	공영주차 시설	문화예술 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및 경기장	쓰레기 소각장 등	기타
27.0	9.2	29.7	44.6	42.4	24.3	16.8	20.2	18.6	6.8	0.4

출처 : 통계청 KOSIS 2011사회조사, 서울시

- 향후 늘려할 복지서비스로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 65.0% 차지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	아동 양육지원 및 돌봄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서비스	임신 출산 지원서비스	장애인(아동)돌봄 및 재활서비스	가사 간병 방문서비스	기타
65.0	40.0	44.9	41.6	21.1	14.4	10.8	0.3

## 야간휴일 경증환자 대상 일차의료기관 부재로 의료접근성이 낮음

-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증가와 중증환자 치료지연
  - 야간 휴일 응급실 이용환자는 33.7%(41만명)이며, 경증환자 78.0%로 응급관리료 본인이 부담함(17,870원~35,740원)
  - 야간·휴일에 진료기관을 이용할 필요성을 느꼈던 비율은 100명당 3.5명임(야간 휴일의 진료서비스 의견조사 결과, '05년 심평원)
- 전문가에 의한 의학적 상담이나 건강상담에 대한 제공에 대한 요구도 높음
  -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오후 9시 전후로 상담실적이 가장 많음('10년)
  - 정보안내, 진료기관 확대, 의학적 상담에 대한 요구도 높음

## 보건소와 시립병원의 연계 미흡

- 서울시 공공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시립병원과 보건소 건강증진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단절되어있음
- 시립병원에서 보건소로의 보건사업 지원과 연계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시립병원과 보건소간의 의료자원·정보의 교류, 지원, 조정하는 시스템 미흡



## 2-3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지와 만족도

### 최근 5년동안 4,417억원 투자로 시립병원 양적 인프라 마련됨

- 586억원('08년), 767억원('09년), 1,159억원('10년), 1,079억원('11년), 826억원('12년)

### 시립병원 비용 이유 중 진료수준 낮다는 것이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시립병원 인지도는 75.3%, 이용경험은 16.8%, 이용 후에도 시립병원인지 몰랐던 사람이 12.3% 차지함(서울시 공공의료 여론조사, '06년)
- 공공의료기관 비용 이유를 분석한 결과, 40.4%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의료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응답함

### 보건소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시민 인지 부족

-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제공 서비스 종류와 이용방법을 몰라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임(서울시민보건지표조사, '10년)
  -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또는 '의료수준과 서비스 신뢰부족' : 31.5%
- 보건소에서는 노인 및 저소득계층에게만 보건증이나 예방접종 등 국한된 서비스 제공한다고 인식되고, 시설과 장비 노후와 공무원의 권위적·관료적 이미지에 대한 개선에 대한 노력 미흡
- 보건소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보건소 이미지 평가에서 차이가 큼
  - 비이용 / 이용 보건소 종합 이미지 : 60.6점 / 71.3점

### 새로운 보건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홍보체계 부족

- 보건사업 홍보에 대한 전담인력이 없고 개별적·산발적 홍보
- 중점사업 등에 대한 시 차원이나 자치구 차원의 총괄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함

## 2-4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지원이 미흡

###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정 부재

-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전문성 확보와 강화가 요구되어짐
- 치료중심의 의학교육과 훈련으로 인한 공공의료와 병원 경영 등에 대한 교육필요

### 시립병원 의료인력 이직률이 높고 공공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 시립병원 의사들의 낮은 근무만족도와 상대적으로 높은 이직률
  - 최근 5년간('07~11년) 평균 이직률 : 은평병원 37.4%, 서북병원 30.1%, 어린이병원 23.3%, 장애인치과병원 18.1%, 보라매병원 5.0%
-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인한 보건의료 인적역량 강화는 필수요소임

### < 분석 결과 요약 >

- ◆ 서울시 병상수는 양적으로 부족한 곳은 없으나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고 특히 시립병원의 규모나 서비스 질 적인 차이 보임  
⇒ 서울시 전체 병상수급 계획을 통한 관리와 병원운영과 평가체계 필요
- ◆ 보건소 당 인구비율이 너무 높고 접근성이 떨어지며 특히 야간 휴일에 대한 일차 의료에 대한 접근성은 현저히 낮고 건강관리 등에 대한 시민의 욕구 증대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부족함  
⇒ 보건소 인프라 확충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필요
- ◆ 시립병원의 양적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시립병원과 보건소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인지와 만족도가 떨어짐  
⇒ 시립병원과 보건소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만족도 개선계획필요
- ◆ 공공의료인력의 이직률이 높고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의 부재로 인한 특히 공공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 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대책과 정기적이고 전문적 교육기회제공

# 【 권역별 의료기관 현황 】

## 1. 의료자원 현황

구분	의료기관수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분소,지소)
서울시	15,610	57	368	15,185	50
동북권	3073	13	95	2965	11
서북권	2841	12	46	2783	13
동남권	6039	14	133	5892	13
서남권	3657	18	94	3545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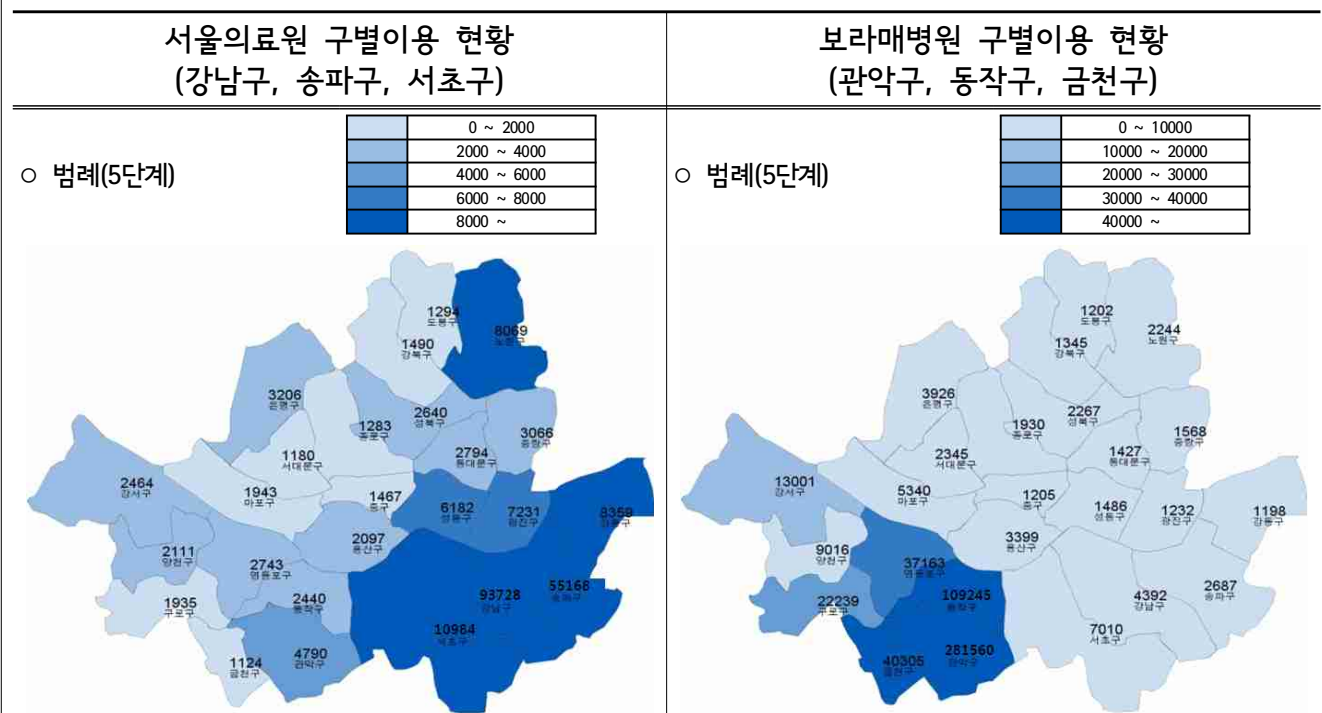
구분	의사수	의사수 (10만명당)	전체병상수	전체병상수 (10만명당)	병원급이상 병상수	병원급이상병상수 (10만명당)	인구수
서울시	38,725	368	79,772	758	63,875	607	10,528,774
동북권	7,033	268	20,340	774	16,254	619	2,626,379
서북권	8,393	466	13,328	741	10,654	592	1,799,780
동남권	15,215	525	25,498	880	20,835	719	2,898,437
서남권	8,084	252	20,606	643	16,132	503	3,204,178

출처 : 2011년 서울통계

\* 권역구분은 서울시 지자체 협의회에서 4개 권역(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구분함

- 동북권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 서북권 : 마포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 동남권 :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 서남권 :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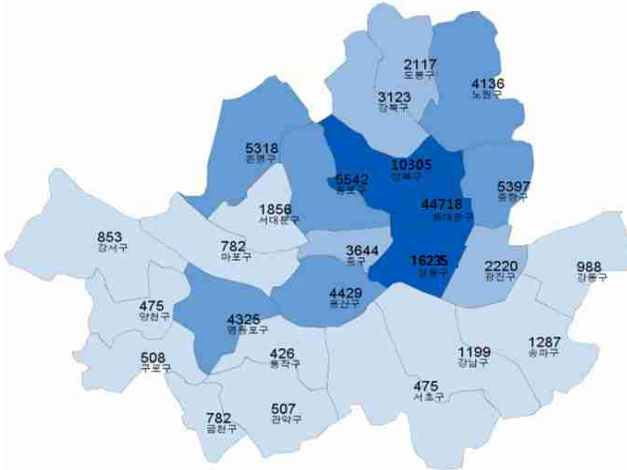
## 2. 시립병원 자체충족률 현황



동부병원 구별이용 현황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 범례(5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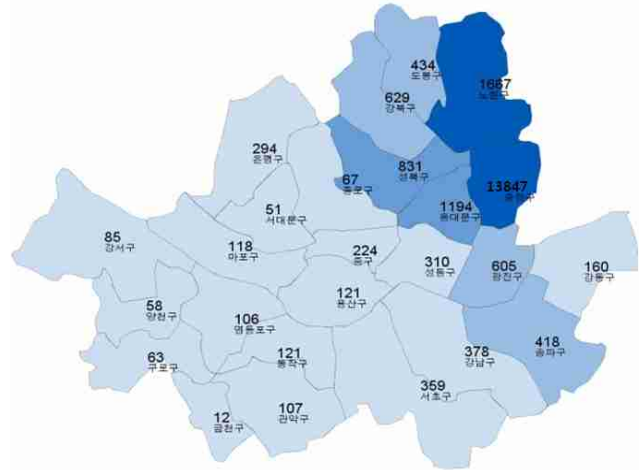
0 ~ 2000
2000 ~ 4000
4000 ~ 6000
6000 ~ 8000
8000 ~



북부병원 구별이용 현황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 범례(5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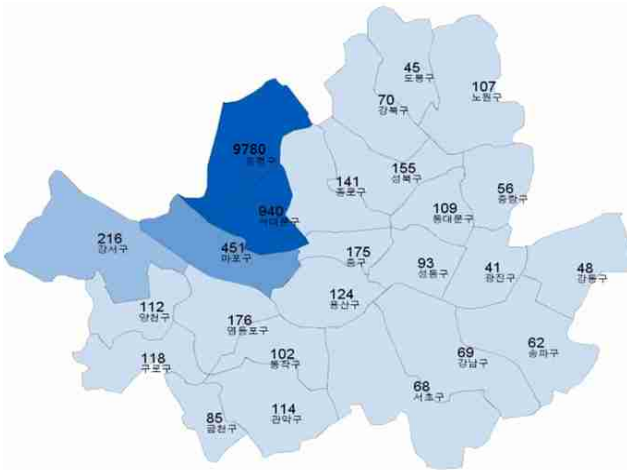
0 ~ 400
400 ~ 800
800 ~ 1200
1200 ~ 1600
1600 ~



서북병원 구별이용 현황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범례(5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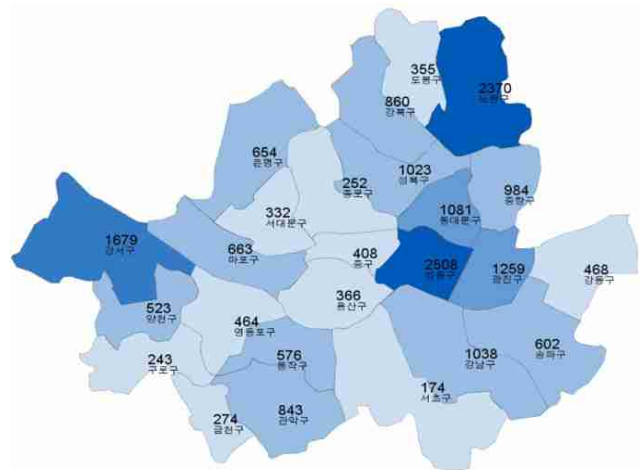
0 ~ 200
200 ~ 400
400 ~ 600
600 ~ 800
800 ~



장애인치과병원 구별이용 현황  
(성동구, 노원구, 강서구)

○ 범례(5단계)

0 ~ 520
520 ~ 1040
1040 ~ 1560
1560 ~ 2080
2080 ~



출처 : 2010년 서울시내부자료

### 3 서울시 건강환경 현황

#### 3-1 새로운 건강위협요인 증가에 따른 신속 위기 대응 필요

##### □ 응급의료환자 발생은 증가추세이나 응급상황 대응력은 미흡

- 응급의료환자 증가
  - '02년 인구1,000명 당 117명⇒ '11년 인구1,000명당 167명
- 미국 및 일본 심정지 생존율 각 8.4%, 10.2%인데 반해 서울 생존율 5%미만에 불과
  - 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실천율 낮음(한국1.8%, 미국 16%)
- 국내외 예방가능환자 사망률 비교
  - 한국은 예방가능 환자의 사망률은 32.6%로 미국(몬테나주) 8%, 싱가포르 22.4%에 비해 최소한 1.54배 가량 높은 수준임(2007년, 보건복지부)

##### □ 국제화 및 인구 과밀화로 신종 전염병 대유행 가능성이 증가

- 사회 전반의 환경변화에 따라 감염병 및 생물테러의 위협에 취약함
-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등으로 시민의 불안감 및 기후 온난화에 따른 피해사례(말라리아, 폭염, 온열 등)의 증가

##### □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으로 인한 자살의 가파른 증가

- 선도적 정신질환자 관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살율 OECD 국가 중 1위
  - 자살률 지속적 증가(인구10만명당) 8.9명('00년) → 31.2명('10년)
- 스트레스와 우울증 경험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 발암물질, 간접흡연 등 물리적 환경에 따른 건강피해 증가

- 10만 가지가 넘는 화학물질 중에는 특히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물질(발암물질·돌연변이물질·생식독성물질·환경호르몬·분해되지 않고 장기간 생태계에 축적되는 물질 등)의 정보를 생산, 공표하고 있지 않음
- '실외 공공장소 간접흡연' 피해 경험률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 '09년 92.4% → '10년 97.5%

- 간접흡연을 가장 많이 경험한 장소로는 음식점/주점이 29.3%로 가장 높았고, 직장 22.1%, 가정 15.9%, 도로 14.9%, 버스정류장 11.0%순임

### 3-2 시민참여와 의료이용자의 권리 구제 창구 부재

#### 환자의 의료이용 편이성이나 서비스 질 등에 대한 개선 노력 미흡

- 보건의료가 공급자 중심의 양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의료이용의 편이성이나 의료의 질과 같은 질적 개선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진
- 보건의료는 전문성이 강조되는 영역이며 이른바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일반시장과 같이 소비자로서의 권리구제가 어려움
- 환자권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분절되고 단편적인 정책으로 인해 기능 부재

#### 시 보건 정책의 수립과정, 정책제안 등에 시민 참여 기전 부재

- 시 보건정책 형성, 수립, 결정과정에서 시민 입장이 반영 되어야 함
- 의료소비자 권리나 의견 개진을 위한 실질적 조직이나 협의체는 전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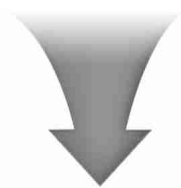
## < 분석 결과 요약 >

- ◆ 응급환자 발생 및 신종전염병 대유행 증가,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발암물질·간접흡연 등 물리적환경에 따른 건강피해 증가
  - ⇒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체계 마련 요구되고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건강정책 필요
- ◆ 환자의 의료이용 편의성, 서비스 질 등에 대한 개선노력 미흡하고 시민이 보건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기전 부재
  - ⇒ 환자권리구제와 보건 정책수립 참여 가능한 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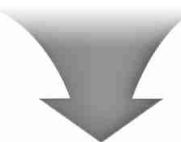


## < 분석결과에 따른 추진방향 >

- 계층과 지역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건강정책 추진
- 시민건강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포괄적 건강관리체계 마련
- 필수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질관리
- 건강환경변화에 대한 건강안전망 구축과 건강친화적 공동체 조성



개별 보건사업 위주의 보건정책에서  
새로운 건강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함께 만드는 건강서울, 함께 누리는 건강서울**

## 4 서울시 건강정책 추진 원칙

### □ 「서비스」에 대한 건강정책 추진 원칙

- 시혜적 치료 서비스나 의료비 지원, 분절된 보건 프로그램 운영 운영  
→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
- 민간에서 기피하는 서비스나 취약계층 중심의 서비스 제공의 소극적 수동적 역할  
→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기본으로 하고  
특정 대상을 위해서는 선택적, 집중적 서비스를 제공 (적극적 의무) 수행
- 공공주도하에 환자와 사업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 민간과 연계하여 전 시민 대상 보건과 의료의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시민 참여를 통한 보건정책 수립과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제고

구 분	과 거	→	건강서울 36.5
서비스 제공성격	치료위주 서비스	→	치료기반의 예방중심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
서비스 제공범위	시혜적 서비스 제공	→	전시민 대상 보편적 서비스 제공과 특정 대상을 위한 선택적 서비스 집중
서비스 제공주체	공공 주도	→	민간자원의 연계, 공공의료 참여유도, 협력체계
서비스 수혜자	환자와 사업대상자	→	전 시민이 건강권리로 참여와 누림

## II

# 비전 및 추진전략

### < 추진 경과 >

####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 총 118회, 1,000여명 참여

- 학계 전문가 자문회의 35회, 175명
  -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비전 및 방향, 중점사업 선정과 추진내용 논의
- 서울시 보건의료직능단체장 의견수렴 10회, 83명
  - ▶ 야간휴일진료센터, 도시형보건지소, 치과주치의, 건강증진협력약국 등 논의
- 시민단체, 민간자원봉사단체 간담회 24회, 120명
  - ▶ 건강제상네트워크, 환자복지센터, 리파엘클리닉, 사랑나눔의사회, 건치 등 회의

#### 정부부처와 내·외부 공무원 협의 및 세미나

- 내·외부 공무원 세미나 30회, 300명
  - ▶ 보건소, 시립병원, 서울시 공무원 대상 중점사업 세부추진을 위한 회의
- 정부 부처와 협의 15회, 45명
  - ▶ 사업방향, 예산 및 인력확보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 식약청, 농림부, 건강보험공단 등
- 시장, 간병인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 속의
  - ▶ 김현정고려대교수, 유지현보건의료노조위원장 외 7명 보호자 없는 병원 추진 속의

#### 시민, 시민단체, 보건소, 시립병원, 보건의료단체 종합 정책 실시

- 보건소 팀장·과장 및 시립병원 기초실장·공공협력팀장 113명
- 시민단체 20개 및 시민 107명
- 보건의료단체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간호사회 14명
- 전문가, 시민단체, 노조대표, 의약인단체, 시립병원, 보건소 43명

# 1 건강서울 36.5 개념

## □ 건강서울 36.5 개념

- 건강한 사람의 체온은 36.5도, 건강한 시민을 위한 건강정책 추진의지
- 365일 시민 건강을 위한 촘촘한 건강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

## □ 건강서울 36.5 성격

- 정책 환경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3개년 연동계획이나 서울시 건강정책의 장기추진전략의 기본 계획
-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종합적 건강정책
- 건강의 주체인 시민의 적극적 참여로 수립하는 건강정책
- 시정 전반에 걸쳐 건강영향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계획

# 2 비전 및 목표

## □ 비 전

- 모든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서울
  - “모든 시민이” 건강한 서울
  -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서울

## ○ 개념

### “모든 시민이” 건강한 서울

- ✓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최고 수준으로 건강한 서울
- ✓ 모든 시민이 보건의료서비스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
- ✓ 계층과 지역에 따른 건강 수준의 격차가 없는 서울

###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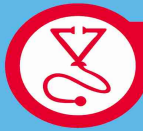
- ✓ 모든 시민이 스스로 건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서울
- ✓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친화적인 사회적·물리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환경을 갖추는 서울
- ✓ 시민의 건강에 대한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함께 만드는 건강 서울

**□ 목 표**

- 예방 중심의 공공보건의료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
  - 주요목표 : 건강수명 73.9세('05년) → 77.0세('20년)
  - 세부목표 : 암 조기 검진율 40.4%(08년) → 60%(20년)  
고혈압 지속 치료율 22.2%(08년) → 40%(20년)
  - 주요사업 : 서울시민 건강관리서비스, 시민건강 point 도입 등
  
- 건강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불평등 해소
  - 주요목표 : 자치구간 사망률격차 43%('09년) → 33%('20년)
  - 세부목표 : 흡연율격차(교육수준, 남자) 16.7%(10년) → 15%(20년)  
자살률격차(고육수준, 여자) 81.1%(10년) → 50%(20년)
  - 주요사업 : 금연을 지원하는 환경사업, 함께 살아가는 자살 없는 서울, 영유아 산모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 비전 체계도**





365일 시민의 건강을 위한 촘촘한 건강정책

희망서울  
평생건강한 서울, 매일 행복한 서울

# 건강서울 36.5



## 건강수명은 늘리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시민 스스로 건강을 키울 수 있도록 서울이 힘껏 돕겠습니다



73.9세

2005년



77.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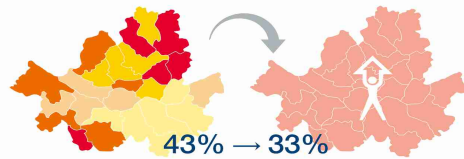
2020년



## 건강격차는 줄이고!

계층과 지역에 관계없이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두가 건강을 누리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 자치구간 사망률격차 10%p 감소



01

### 질병예방 / 건강관리

- 시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건강서울
- 어린이의 건강을 돌보는 건강서울
-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건강서울



03

### 건강을 지원하는 환경조성

-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건강서울
- 건강환경을 만드는 건강서울
- 보건정책을 이끄는 건강서울



02

###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 제공

- 시민에게 다가가는 서울형 의료서비스
- 시립병원을 개선하는 건강서울
- 소외계층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건강서울



희망서울  
평생건강한 서울, 매일 행복한 서울

평생 건강한 시민, 매일 행복한 서울! 365일 서울이 시민을 사랑합니다



## 3 추진 전략

### 3-1 단기(~ '14)추진 전략

####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 건강형평성 실현 위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
  -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의 공공의료 사업수행으로 스스로 건강한 시민 건강 실천 강화
  -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건강증진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필수의료체계 개선 및 사회적 지원 역할 강화로 모든 시민이 건강한 서울 구현

####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 시민의 참여와 정책의 공개성 강화
  -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시민참여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
  - 시민참여의 질적강화를 위한 시민참여 영역 확대
- 서울시 “건강네트워크” 구축 전략
  -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차 보건의료 중심으로 "지역" 건강 네트워크 구축
  - 모든 지역에서 보건의료 요구에 공백이 없도록 병원급 서비스 중심으로 "생활권역" 건강 네트워크 구축
- 민간협력과 지원 전략
  - 민간의료의 다양한 참여 마련과 파트너십 구축
  -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자원에 대한 지원을 통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 □ 건강친화적 공동체 조성

- 건강위험요인(흡연, 음주, 비활동, 비만, 영양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건강생활실천 지원
-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통한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등) 예방
- 예방의료의 강화 : 건강관리서비스, 예방접종 확대, 아동치과주치의 등
- 질병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통한 이차예방 지원
- 건강위해 환경을 줄이고 쉽게 건강생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친화적 환경조성

## □ 건강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건강안전망 구축

- 상향평준화를 위해 건강취약지역(건강 취약구, 건강 취약동 등) 선정을 통한 우선 자원배분
- 시민 밀착형 건강관리서비스로 도시보건지소 확충을 통한 공공인프라 마련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부문간 협력체계 마련
- 서울시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영유아·산모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금연 형평 사업, 형평적 자살예방사업) 중점 추진

## 3-2 중장기 추진 전략

### □ 중기(~ '17)

- 건강생활권역별 공공의료체계 개혁을 통한 지역 불평등 해소
  - 건강생활권역별 보건의료체계 구축으로 모든 시민이 보건의료서비스를 공평하게 이용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공공의 선도적 실천으로 민간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추진
  - 전문화 및 효율화를 통해 시민 누구나 믿고 이용 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실현



- 민간의료의 다양한 참여기전과 파트너십 구축
  - 서울시립병원을 서울의료원 중심 법인으로 통합·효율화
  - 민간의료의 공공참여 방안의 다양화 추진
  - 건강생활권역 중심으로 민간참여 유도

## □ 장기(~ '20)

-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 연계를 통한 효율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 효율적 노인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한 고령사회에 준비된 서울
  - 서울시민 건강주치의 전면 실시
  - '건강마을'과 공공보건의료의 결합
- 서울시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 완성
  - 제도기반의 공공-민간 간 보건의료자원 통합
  - 보건의료에 있어 공공-민간 간 파트너십 완성
  - 지역사회 중심의 민간참여형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집행

### Ⅲ

## 정책과제 및 중점사업

### □ 3대 정책과제 및 중점사업

#### ① 질병예방과 건강관리 강화

- 시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건강서울
- 어린이의 건강을 돌보는 건강서울
-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건강서울

⇒ 총 12개 사업 중 신규 7개, 확대강화 5개 사업임

(서울시민 건강관리서비스 실시, 시민건강 point 도입, 영유아 산모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아동치과주치의제 등)

#### ②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 제공

- 시민에게 다가가는 서울형 의료서비스
- 시립병원을 개선하는 건강서울
- 소외계층의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건강서울

⇒ 총 13개 사업 중 신규 7개, 확대강화 6개 사업임

(보호자 없는 병원, 서울형보건지소, 야간휴일 의료기관 진료, 시립병원 건강생활권역 인프라 확대,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등)

#### ③ 건강을 지원하는 환경조성

-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드는 건강서울
- 건강환경을 만드는 건강서울
- 보건정책을 선도하는 건강서울

⇒ 총 17개 사업 중 신규 11개, 확대강화 6개 사업임

(지역건강네트워크 구축, 환자권리 옴부즈만, 건강마을조성, 암없는 서울만들기, 인권피해자치유센터 운영 등)

□ **중점사업(42개)**

사 업 명		비고
<b>I. 질병예방 건강관리</b>		
시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건강서울	1. 서울시민 건강관리서비스 실시	신규
	2. 시민건강 point 도입	신규
	3. 응급환자를 돕는 시민 능력향상(심폐소생술교육확대)	확대·강화
	4.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확대·강화
	5. 약국에서 건강관리 받으세요 - 건강증진협력약국	신규
어린이의 건강을 돌보는 건강서울	6. 영유아와 산모의 건강을 돌보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신규
	7. 아동치과주치의제 실시	신규
	8. 필수예방접종 무료 및 선택예방접종 확대	확대·강화
	9. 토요어린이건강클럽운영	확대·강화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건강서울	10. 어린이 정신건강을 위한 '마음건강학교' 운영	확대·강화
	11.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어르신 건강돌봄체계	신규
	12. 노인 구강건강 지원 서비스	신규
<b>II.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 제공</b>		
시민에게 다가가는 서울형 의료서비스	13. 보호자 없는 병원	신규
	14. 마을 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서울형 보건지소	신규
	15. 야간휴일에도 의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16. 급할때 바로 연결되는 서울건강콜 서비스	신규
	17. 서울특화 응급진료센터 운영	신규
	18. 공공산후 조리원 설치·운영	신규
시립병원을 개선하는 건강서울	19. 시립병원관리감독 시스템마련과 강화	확대·강화
	20. 시립병원 공공의료 특성화 및 차별화	확대·강화
	21. 시립병원 건강생활권역 인프라 확대	확대·강화
	22. 공공의료인력개발과 처우개선	신규
소외계층의료이용을 지원하는 건강서울	23.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확대·강화
	24. 노인, 중증장애인에게 찾아가는 치과진료	확대·강화
	25. 외국인근로자, 이주민 입원과 수술비지원에 간병, 통역서비스까지	확대·강화
<b>III. 건강을 지원하는 환경조성</b>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드는 건강서울	26. 휴직·퇴직 의료인의 '건강서울 36.5' 참여	신규
	27. 시민참여에 의한 지역건강네트워크 구축	신규
	28. 민간의료봉사단체 지원	확대·강화
	29. 환자권리옴부즈만	신규
	30. 서울시민 건강회의개최	신규
건강환경을 만드는 건강서울	31. 건강마을, 건강도시	신규
	32. 암 없는 서울만들기	신규
	33. 신종플루, 조류독감, 결핵 등 감염병대응센터 설치·운영	신규
	34. 인권피해자 치유센터(트라우마치유센터)운영	신규
	35. 함께 살아가는, 자살없는 서울	확대·강화
	36. 금연을 지원하는 환경	확대·강화
	37. 건강한 먹거리(채소과일늘리기와 나트륨줄이기사업)	확대·강화
	38.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피해, 절주운동으로 시민건강확보	확대·강화
	39. 시민밀착형 신체활동 활성화 프로젝트	확대·강화
보건정책을 선도하는 건강서울	40. 의료비 부담해소를 위한 서울시-국민건강보험공단 협의체 운영	신규
	41. 제3세계 의료지원(북한어린이 돕기)	신규
	42. 서울시 의료급여 관리 및 개선	신규

# 1 질병예방 건강관리

## 세 부 과 제

- 시민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건강서울
  -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지원과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예방 중심의 공공보건의를 구현
  - 모든 시민이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도모
- 어린이건강을 돌보는 건강서울
  - 영유아·산모의 건강을 돌보는 건강발달 종합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미래 지향
  - 예방중심의 치과의료서비스, 필수·선택예방접종 확대, 신체활동 프로그램운영, 학교를 기반으로 정신건강 환경 조성으로 아동 건강 증진
-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건강서울
  - 어르신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체계적으로 해결하여 건강관리 강화

### □ 사업 목표와 지표

목표구분	정책과제	세부과제	중점사업	목표(2012→2014)
건강수명연장	질병예방건강관리	시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건강서울	서울시민 건강관리서비스실시	· 참여 자치구 수(0 → 25개구) · 거점형 건강주치의센터 운영(0 → 47개사업병원)
			시민건강point 도입	· 건강포인트제 참여 자치구 수(0 → 25개구) · 만성질환교육상설센터(0 → 25개구)
			응급환자를 돕는 시민능력향상	· 심폐소생술 교육(12만명 → 12만명)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 자치구 스트레스 상담실 설치 운영(0 → 25개구)
			약국에서 건강관리 받으세요-건강증진협력약국	· 인증 약국수(0 → 100개소)
		어린이의 건강을 돌보는 건강서울	영유아와 산모의 건강을 돌보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0 → 출생아의 50%)
			아동 치과주치의제 실시	· 치과주치의 의료서비스(초등4~6학년) (20,000명 → 250,000명) · 치과주치의 의료서비스(저소득층 아동) (10,000명 → 10,000명)
			필수예방접종 무료 및 선택예방접종 확대	· A형감염, 뇌수막염(15% → 20%)
			토요 어린이건강클럽 운영	· 토요어린이건강클럽 참여 학교 수(175개교 → 600개교) · 참여 학생수(8,750명 → 10,000명)
			어린이 정신건강을 위한 '마음건강학교' 운영	· 마음건강학교 참여 학교 수(9개교 → 50개교)
	고령사회 대비하는 건강서울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어르신 건강돌봄체계	· 치매유병율(8.7% → 8.8%)	
		노인 구강건강 지원 서비스	· 저소득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지원(0 → 2,200명)	

## 1-1 시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건강서울

- **서울시민 건강관리서비스 실시 (신규)** <보건정책과>
  - 서울시민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 운영 : 5개구('13)→25개구('14)
  - 보건소 건강주치의·건강클리닉 운영 및 건강소문통을 통한 홍보강화
  - 보건소와 시립병원 연계한 거점형 건강주치의 센터 운영 : 2개소('13)→4개소('14)
- **시민건강 point 도입 (신규)** <보건정책과>
  - 환자와 의사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 동기 유발 및 지속적 만성질환관리 유도
  - 서울시 만성질환관리사업 협력체계 구축 : 15개구('13)→25개구('14)
  - 서울시 만성질환관리광역설치를 통한 기술지원('13)
- **응급환자를 돕는 시민 능력향상 (강화)** <보건정책과>
  - 심폐소생술 표준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활성화 : 연간 12만명
  - 자동제세동기 설치 확대, 재난의료지원단 구성 및 운영 : 82팀 413명
  - 응급의료지원단을 통한 체계적·전략적 추진
-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강화)** <보건정책과>
  - 마인드 SOS(Seoul Occupational Stress Management)센터 설치·운영
  - 영세사업장 대상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보급 및 지원 : 25개구('14)
- **약국에서 건강관리 받으세요 - 건강증진협력약국 (신규)** <보건정책과>
  - 건강증진협력약국의 기준·업무매뉴얼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축
  - 건강증진 협력약국 선정·운영 : 5개구 50개소('13)→10개구 100개소('14)

## 1-2 어린이의 건강을 돌보는 건강서울

- **영유아와 산모의 건강을 돌보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신규)** <건강증진과>
  - 산전 및 아동기 건강발달 보편적 가정방문 프로그램 사업 실시
    - 임부를 20주 이내 방문을 시작으로 건강문제를 중심으로 그룹별 분류 추후 방문
    - 출산 후 4주 이내 모든 산모 및 아동 방문
    - 서울시 전체 출생아의 약 20% 또는 5개구('13)→전체 출생아의 약 50%('14)

- 보편적프로그램에서 그룹별 분류로 집중프로그램 실시로 효과성 확보
- 어린이 건강발달사업 지원단에서 아동 건강발달 종합프로그램 개발 연구
- **아동치과주치의제 (신규)** <보건정책과>
  - 제공되는 구강검진·보건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표준화된 매뉴얼, 평가방안 마련
  - 협력체계 구축 :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 지역아동센터지원단, 치과의사회 등
  - 서울 전지역 지역아동센터 아동 전체 대상으로 운영
  - 초등학교 4학년(6개구, 2만명) 시범 운영→초등학교 4~6학년 전체 25만명 확대('14)
- **필수예방접종 무료 및 선택예방접종 확대 (강화)** <보건정책과>
  - 필수예방접종 무료 전면 시행
  - 선택예방접종 취약계층(차상위 15%) A형간염 무료접종 → 뇌수막염 추가
- **토요어린이건강클럽운영 (강화)** <건강증진과>
  - 토요 신체활동프로그램 및 가족 건강체험 동아리 운영 : 초등학교 600개교('14)
  - 건강스크리닝(비만도, 심리정서검사) 초등학생 3학년 이상 약 10,000명 실시
- **어린이 정신건강을 위한 '마음건강학교' 운영 (강화)** <보건정책과>
  - 학교기반 정신건강 환경조성을 위한 마음건강학교 확산 추진 : 12개교('13)→50개교('14)
  - 서울시 아동청소년 고위험군에 대한 초기평가 및 사례관리
  - 정신질환·위기상황 아동청소년에 대한 집중치료서비스·관리 확대 실시

### 1-3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건강서울

-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어르신 건강돌봄체계 (신규)** <보건정책과>
  - 치매지원센터를 '노인건강증진센터'로 기능과 역할 확대·운영 : 5개구('13)
  - 치매, 방문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등을 통합한 서비스 개발·운영
  - 치매지원단을 '노인건강관리지원단'으로 확대 개편
- **노인 구강건강 지원 서비스 (신규)** <보건정책과>
  - 건강보험급여 제외 75세 이상 부분틀니 및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지원 : 2천명
  - 건강보험 미적용자 65세~74세 노인 중 저소득층의 완전·부분틀니 지원

· 자치구 노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 2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 제공

### 세 부 과 제

- 시민에게 다가가는 서울형 의료서비스
  - 간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립병원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운영 및 보건지소의 양적·질적 확충으로 시민의 건강관리, 건강불평등 해소
  - 야간휴일 진료 연계망 구축 및 24시간 전문가 건강상담으로 의료정보 접근성 향상
  - 노인 건강, 여성 건강, 자살 예방 등 특수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
- 시립병원을 개선하는 건강서울
  - 시민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편안한 시설에서 최고 수준의 적정 진료를 제공
  - 응급의료, 정신건강, 장애인 건강, 건강관리 등 필수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
  -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역량 증대를 위해 교육 및 지원을 확대
- 소외계층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건강서울
  - 건강 취약계층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 저소득층, 노숙인, 미등록 이주민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직접 제공을 통해 의료이용을 보장

### □ 사업 목표와 지표

목표구분	정책과제	세부과제	중점사업	목표(2012-2014)
건강 격차 해소	질높은 공공 보건 의료 제공	시민에게 다가가는 서울형 의료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원	· 병상 보호자 없는 병원(서울의료원 → 전 시립병원)
			마을 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서울형 보건지소	· 서울형 도시보건지소 도입(5개소 → 75개소)
			야간휴일에도 의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협력 민간 야간휴일 진료기관(50개소 → 100개소)
			급할때 바로 연결되는 서울건강콜 서비스	· 전문가 건강상담(1만건 → 5만건)
			서울특화 응급진료센터 운영	· 소아·노인전용응급센터(2개소 → 5개소) · 서울형 정신·성폭력 전문응급실(4개소 → 9개소)
			공공산후 조리원 설치 운영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2개소 → 4개소)

목표구분	정책과제	세부과제	중점사업	목표(2012→2014)
건강 격차 해소	질높은 공공 보건	시립병원을 개선하는 건강서울	시립병원관리감독 시스템미련과 강화	·공공의료지원단 관리감독 지원기능마련 → 강화)
			시립병원 공공의료 특성화 및 차별화	·병원별 특성화 및 전문화(방향 정립 → 안정화)
			시립병원 건강생활권역 인프라 확대	·특성화병원 건립(필요성검토 → 추진)
			공공의료인력개발과 처우개선	·기본역량 교육 프로그램(준비 → 상시교육, 정착)
	의료 제공	소외계층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건강서울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시스템구축 및 운영	·진료인원(10,000명 → 12,000명)
			노인 증증장애인에게찾아가는 치과진료	·진료인원(15,800명 → 17,800명)
			외국인근로자, 이주민 입원과 수술지원에 간병 통역서비스까지	·외국인의료비 지원(200건 → 1,400건) ·간병서비스 지원(100건 → 200건)

## 2-1 시민에게 다가가는 서울형 의료서비스

### ○ 보호자 없는 병원 (신규)

<보건정책과>

- 서울의료원부터 230병상 시범사업 실시 : 병실단위, 공동간병원칙, 4조 3교대
- 간호사 중심의 보호자 없는 병원 구현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동시 추구
- ‘보호자 없는 병원운영 협의체’ 구성하여 운영·질 개선 방안 논의
- 2015년까지 모든 시립병원으로 확대→국민건강보험을 매개로 제도화 추진

### ○ 마을 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서울형 보건지소 (신규)

<보건정책과>

- 자치구별 인구 5~7만명당 1개소 서울형 보건지소 설치
- 표준형모델 : 20개소('14)
  - 만성질환예방관리·재활보건사업 등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참여형모델 : 50개소('14)
  - 시민 주도참여·평생 자가건강관리 가능하도록 건강주치의, 건강클리닉, 건강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

### ○ 야간휴일에도 의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보건정책과>

- 서울시 협력 야간휴일 진료 민간의료기관 선정·운영 : 50개소('12)→100개소('14)
- 미충족 지역에 공공부분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 보건소(지소) 연계 활용



- 야간휴일 진료 민간의료기관 SNS, 앱, 120다산콜, 119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 **급할 때 바로 연결되는 서울건강콜 서비스 (신규)** <보건정책과>
  - 서울건강콜 설치·운영 및 상담실시 : 3만건('13)→5만건('14)
  - 휴일야간에 의료상담 제공에 대한 높은 요구도에 따라 전문가 건강상담
  - 119에 접수된 전화 중 응급은 바로 처리하고, 비응급은 의사에게 전문상담
- **서울특화 응급진료센터 운영 (신규)** <보건정책과>
  - 소아전용(4개소('14))·노인전문(1개소('14)) 응급센터 지정하여 서비스 강화
  - 공공응급의료(정신응급/자살, 성폭력피해) 지정·운영 : 4개소('14)
  - 서울형 심정지 중환자 치료센터 지정 및 관리 : 5개소('14)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신규)** <건강증진과>
  - 저출산 시대 진입으로 저소득 산모의 출산장려·산후조리 지원 인프라 구축
  - 보건지소 내 특화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 2개소 설치·운영
  - 산후조리원 운영의 표준화 및 서비스 질 관리

## 2-2 시립병원을 개선하는 건강서울

- **시립병원관리감독 시스템 마련과 강화 (강화)** <보건정책과>
  - 공공의료지원단을 통한 시립병원 운영 및 경영·기술지원 기능 강화
  - 시립병원 평가와 보조금지급 연계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 의료장비 공동구매 및 공동활용 추진 : 서울시 장비규격심의회 신설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의 주체기관으로써 시립병원의 운영효율화
- **시립병원 공공의료 특성화 및 차별화 (강화)** <보건정책과>
  - 급성기 -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 리더병원으로서 공공의료기관 중심 역할
    - 동부병원 : 지역밀착형 종합병원
  - 노인 - 북부병원, 서남병원, 서북병원 : 노인성 질환 전문 및 감염병 특화

· 정신 - 은평병원 : 서울시 정신보건의료 선도병원

○ **시립병원 건강생활권역 인프라 확대 (강화)**

<보건정책과>

- 공공종합병원(서북, 동남지역/500병상) · 노인병원(동남/200병상) 설립 추진
- 어린이병원 행동치료센터 건립
- 제2장애인치과병원 설립(서남지역) 및 장애인 구강진료 지원시스템 구축

○ **공공의료인력 확보 및 역량강화 (신규)**

<보건정책과>

- 서울공공의료장학금 제도 운영하여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
-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시립병원 의사 역량 강화 및 자긍심 제고 : 연구개발비 지원, 자원봉사 의무화

## 2-3 소외계층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건강서울

○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 운영 (강화)**

<보건정책과>

- 의료취약계층에 개인진료기록부를 만들어 체계적 · 정기적 건강관리
- 서울시 9개 시립병원 인프라 활용(나눔진료봉사단) 70회 10,000명 진료('13)
- 매월 4~6회, 6,600여명 진료 및 위험군은 병원으로 즉시 연계

○ **노인, 중증장애인에게 찾아가는 치과진료 (강화)**

<보건정책과>

- 현황파악 및 280회 운영 16,000명 진료('13)→300회 운영, 17,800명('14)
- 노인이동치과 운영 : 서울의료원에서 각 지역별 복지관 순회 이동진료
- 장애인이동치과 운영 : 장애인치과병원에서 장애인 시설 등에 이동진료

○ **외국인근로자, 이주민의 입원과 수술비지원에 간병 · 통역서비스까지 (강화)**

<보건정책과>

- 의료비 지원 : 수술 · 입원비 1회 500만원이내 지원, 자녀의 외래진료비 · 약제비 등
  - 1,300건('13)→1,400건('14)
- 의료통역 및 간병서비스 제공 : 150건('13)→200건('14)

-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게 보건소·시립병원에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3 건강을 지원하는 환경조성

#### 세 부 과 제

-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드는 건강서울
  -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통합적 민원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민건강위원회를 운영
  - 공공보건의로 인력의 역량 증대를 위해 교육 및 지원을 확대
- 건강환경을 만드는 건강서울
  -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건강환경을 조성
  - 인권피해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사회복지적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실시
- 보건정책을 선도하는 건강서울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의료비 부담해소하고 의료급여 관리로 취약계층 건강서비스 강화
  - 의료봉사단 및 시립병원에서의 제3세계 의료지원으로 국제적 위상 높임

#### □ 사업 목표와 지표

목표구분	정책과제	세부과제	중점사업	목표(2012→2014)
건강수명연장	건강을 지원하는 환경조성	시민이 참여하는 함께만드는 건강서울	휴직퇴직 의료인의 건강서울36.5 참여	·유휴 의료인력 활용(0 → 300명)
			시민참여에 의한 지역건강네트워크구축	·생협 등 지역자원 참여(0 → 4개소)
			민간의료봉사단체 지원 체계	·민간단체 무료진료(현황조사 → 활성화)
			환자권리음부즈만	·민원상담 및 예방활동(0 → 2,000건)
			서울시민 건강회의개최	·서울시민건강회의 구성, 운영(2회 → 6회)
			건강마을, 건강도시	·건강친화마을(2개 → 50개)
			건강환경을 만드는 건강서울	
		암 없는 서울 만들기	·발암물질 없는 학교 만들기 참여 자치구 수(0 → 10개구)	
		신종플루, 조류독감, 결핵 등감염병대응센터 설치운영	·감염병 대응센터 설치 운영(1개소 → 활성화)	
		인권피해자 치유센터(트라우마치유센터)운영	·인권피해자 치유센터(기초연구 진행 → 운영)	
		함께 살아가는, 자살없는 서울	·자살예방 참여 자치구 수(5개구 → 25개구)	
		금연을 지원하는 환경	·살내흡연 단속(행정기반조성 → 정책)	
		건강한 먹거리(채소과일늘리기와나트륨줄이기사업)	·서울시 건강인증 음식점 지정영양분석 및 기술지원(0 → 300개소)	

목표구분	정책과제	세부과제	중점사업	목표(2012→2014)
건강수명연장	건강을 지원	건강환경을 만드는 건강서울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피해 절주운동으로 시민건강확보	• 음주예방 사업(주류광고 퇴출 → 캠페인)
		건강서울	시민밀착형 신체활동 활성화 프로젝트	• 취약계층 어린이 신체활동(700개소 → 2,000개소) • 노인신체활동 사업(0 → 200개소)
	환경 조성	보건정책을 선도하는 건강서울	의료비 부담해소를 위한 서울시국민건강보험공단 협업체 운영 제3세계 의료지원 서울시 의료급여 관리 및 개선	• 서울시건강보험공단 협업체(구성 및 논의 → 본격 추진) • 시립병원 환자 초청진료(0 → 전 시립병원) • 의료급여 관리시스템 및 차상위 자원체계(0 → 지원 확대)

### 3-1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드는 건강서울

- 휴직·퇴직 의료인의 ‘건강서울 36.5’참여 (신규) <보건정책과>
  - 의료인협회를 통한 인력풀 구성으로 직종별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연계
  - 의료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로 봉사희망자 정보교류의 장 마련
  - 다양한 교육기회부여 및 취업희망자 구인기관과 연계 : 200명('13)→300명('14)
- 시민참여에 의한 지역건강네트워크 구축 (신규) <보건정책과>
  - 다양한 지역자원 현황조사 및 지역건강네트워크 구축
  - 건강복지공동체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기준마련으로 다각적 지원방안 수립
  - 의료생협 지원 시범사업 실시 : 2개소('13)→4개소('14)
- 민간의료봉사단체 지원 (강화) <보건정책과>
  - 자발적인 민간의료봉사단체의 무료진료 활동 대시민 홍보
  - 민간의료봉사단체 지속적 무료진료 활성화를 위한 지원 : 2개 단체('14)
  - 유소견자 2차 진료 연계위한 시립병원 등 공공보건기관과 진료네트워크 구축
- 환자권리옴브즈만 (신규) <보건정책과>
  - 공급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에서 상대적 약자인 환자의 권리구제 위해 필요
  - 의료민원 접수창구 일원화 및 시민단체, 보건소, 법률·의료자문단으로 운영
  - 환자권리옴브즈만 운영으로 민원상담 및 예방활동 : 1,500건('13)→2,000건('14)

- **서울시민 건강회의 개최 (신규)** <보건정책과>
  - 보건·건강정책 과정에 일반 시민참여 및 의견수렴의 제도적 틀 마련
  - 건강회의 반기별 1회 정기 운영 및 필요시 임시 운영 : 6회('13)
  - 신규사업, 정책, 개선방향 등 제시하여 절차와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 확보
- **건강마을, 건강도시 (신규)** <건강증진과>
  - 건강친화마을 시범운영 후 확산 : 2개구('12)→25개구('13)
  - 복지건강마을 지원단 : 마을사업 기술지원 및 인큐베이팅 센터 역할 수행
  - 자발적인 주민참여 및 의사소통, 지역 복지네트워크 구축

### 3-2 건강환경을 만드는 건강서울

- **암 없는 서울 만들기 (신규)** <공중위생과>
  - 환경성 질환관리를 포함한 서울시 환경보건에 대한 제도 및 기반 마련
  - 5대 발암물질 줄여나가기 사업 : 발암물질 모니터링·정보제공, 질환정보제공
  - 발암물질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 : 10개구('14)에서 환경성 질환 노출실태조사
  - 발암물질에 대한 정보제공과 알권리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신종플루, 조류독감, 결핵 등 감염병대응센터 설치·운영 (신규)** <보건정책과>
  -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감염병 대응센터, 지원단 설치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의한 시행계획 수립
  - 감염병 국내외 최신동향 분석 및 예측,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 기후변화 등에 의한 감염병 증가 분석 및 장·단기 대책 수립
- **인권피해자치유센터(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신규)** <보건정책과>
  - 인권피해자치유센터 설치를 위한 기초연구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 인권피해자치유센터 설치 및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연계

· 고문피해자 전담 병동설치로 전문 의료지원

○ **함께 살아가는, 자살없는 서울 (강화)**

<보건정책과>

- 서울시 자살예방 서비스 전달체계 및 위기대응 지원체계 구축
- 고위험군 서비스제공 밀착인력 자살예방활동 강화
-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족의 2차 피해확산 방지
- ‘심리적 부검’을 통한 자살의 사회적 대책 촉구

○ **금연을 지원하는 환경 (강화)**

<건강증진과>

- 흡연관련 사회적 규범과 태도변화를 위한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실시
- ‘서울금연정책추진단’ 구성·운영
- 금연에서의 건강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
- 간접흡연실태 조사 후 실내흡연 구제 및 담배관고 제한 등 법령 이행 강화

○ **건강한 먹거리(채소과일늘리기와 나트륨줄이기 사업) (강화)** <건강증진과>

- 건강음식점·단체급식 건강메뉴 제공 인증 : 100개소('13)→300개소('14)
- 영양교실 및 영양클리닉 프로그램운영 : 10개구('13)→15개구('14)
- 영양친화기업(Nutrition Friendly Workplace) 인증제도실시 : 100개소('14)
- 저소득층 채소과일 제공사업 : 1만3천명('13)→2만명('14)
- 아동 급·간식 개선사업 : 1,300개소('13)→2,000개소('14)
- 올바른 식생활 실천 캠페인 실시 및 나트륨 함유량 조사

○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피해, 절주운동으로 시민건강 확보 (강화)** <건강증진과>

- 주류광고 및 후원 금지, 절주 홍보 및 주류판매방법 개선
- 음주청정지역 및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 서울지역 실태조사, 절주 사업개발 및 장기목표 산출 등 연구지원

○ **시민 밀착형 신체활동 활성화 프로젝트 (강화)**

<건강증진과>

- 유관기관 발굴 및 파트너십을 통한 신체활동 지원 체계 마련 : 1,170개기관(13)
- 서울시민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적용·홍보
- 시민 참여형 신체활동 리더 및 전문가 양성 : 6천명(13)→1만명(14)
-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추진 기반 조성 : 우리동네 건강공원 5개소, 직장인 건강동아리 육성 시범 25개소, 계단 이용 활성화 캠페인 시범 10개소

### 3-3 보건정책을 선도하는 건강서울

- **의료비 부담해소를 위한 서울시-국민건강보험공단 협의체 운영 (신규)** <보건정책과>
  - 건강보험료 체납자 구제 방안 모색
  - 과부담 의료비 부담가구 실태파악, 지원방안·제도개선 촉구
  - 건강보험 비급여 가격분석 및 합리적인 가격 유도 방안 모색
  -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한 시민의 건강검진, 의료이용 등 정보를 보건소와 교류하여 시민의 건강관리에 활용
- **제3세계 의료지원 (신규)** <보건정책과>
  - 보건의료 취약도시에 시립병원과 민간의료단체가 협력하여 지원 : 2개(13)→4개(14)
  - 현지인 진료, 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 지원
  - 제3세계 환자 초청 진료, 보건의료인 초청 교육 및 연수
- **서울시 의료급여 관리 및 개선 (신규)** <보건정책과>
  - 서울시 의료급여 재정부담 조성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 서울시 의료급여 재정 지출 관리 강화
  - 서울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보건소·시립병원 서비스 강화



## IV

#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

## 1 추진 체계

### □ 건강서울 36.5 추진을 위한 ‘서울시 건강위원회(가칭)’ 설치운영

#### ○ 필요성

- 일반적인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다양한 부문간 협력이 요구되어짐
- 실질적인 전략기획과 부처간 업무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마련되어야 함
  - 시 보건정책결정권자와 의회대표가 포함되는 실질적인 정치적 전략기구필요

\* 일반적인 건강결정요인(general health determinants): 기대여명이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들 중 유전적이거나 생물학적이 아닌 것

- a. 주거기준, 교통서비스, 공공안전
- b. 고용전망, 소득능력과 번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
- c. 공공서비스에 접근하기 쉽거나 어려운 정도
- d. 담배, 알코올, 혹은 다른 물질 등 건강에 해롭거나 해로울 수도 있는 개인의 행동과 생활습관 등

#### ○ 구성 및 조직

- 보건의료분야별 대표성을 가지고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시 정책결정자, 시의원, 시민, 전문가, 건강관련 서울시 간부, 직능단체, 시민단체 등 포함
- 조직(안) : 서울시 건강위원회 위원장(시장), 분과위 구성(정책과제별)

#### ○ 운영 방향

- 건강서울36.5실효성을 높이고 추진과정에서 실행력 확보를 정책결정의 장 마련
- 건강서울36.5의 중장기 정책방향제시 등 프로젝트 추진과정 참여와 평가
- 건축, 도로, 교통, 문화 등 시정 전반 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실시
- 서울특별시 건강위원회 조례 제정을 통한 명문화 추진

## □ **중점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 실무운영단 구성 운영**

### ○ 구성 및 조직

- 시 건강관련부서장, 시립병원장,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소장, 시민단체 등 참여
- 조직(안)
  - 복지건강실장, 기존 지원단·자문단·위원회포함, 실무운영위 구성(정책과제별)

### ○ 운영 방향

- 건강서울36.5의 중점사업의 추진과정 평가와 기관별 유기적 협력과 지원
- 건강서울36.5 주요사업 목표와 지표 평가

#### ※ 보건정책관 소관 위원회 및 자문단 등 현황

- 법적 근거 기반 위원회 6개: 법령4, 조례2
  -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지역보건의료심의회 포함),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 2 성과 관리

### □ 건강서울 36.5 평가 핵심지표 선정과 통계DB 운영

- 서울시 건강지표 profile마련을 통한 정책과제별 핵심 지표 관리
  -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시민보건지표조사 결과 활용을 위한 통계청,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서울시 정보화기획단 등 협력 체계 마련
  - 건강서울36.5 성과를 평가할 핵심지표 선정
- 서울시 건강통계 DB를 활용하여 자치구별, 동별 보건통계분석과 결과환류를 통해 개별 자치구 사업 성과 평가 자료로 사용하도록 제공함
  - 보건의료인프라(시설, 장비, 기관수, 인력 등), 건강수준, 건강행태수준, 건강격차 등
  - 시 건강정책결정의 근거로 사용

### □ 사업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운영

- 목표
  - 사업별 정책목표 달성도를 점검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임
  - 연간 평가를 통한 사업우선순위 선정이나 효율적 자원배분 척도로 활용
- 평가시스템구축
  - 건강서울36.5 주요 보건지표를 서울시 건강통계 DB 통한 지속적 관리
    - 서울시민보건지표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청 등 자료통합관리
  - 중점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한 분기별 연간 실적 수합과 모니터링
  - 주요 보건지표와 성과실적에 대한 평가와 환류체계 마련
    - 서울시 건강통계 DB화와 보건소 및 시립병원 평가 계획과 연동하여 체계 마련
- 평가 활용
  - 매년 실시되는 보건소 성과 평가와 시립병원 평가때 객관적 자료로 활용
  - 사업 목표 달성도 점검에 이용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대책마련에 활용
  - 행안부 및 보건복지부 평가 준비에 활용

### □ 보건예산 확대 필요성

- 건강수준 격차가 확대, 그러나 공공인프라 부족
  - 서울시민의 평균적 건강수준은 좋아지고 있지만 지역별 격차가 커지고 있음
  - 그러나 인구규모에 비해 보건소, 병원 등 공공인프라 매우 적음
- 인프라 부족에서 사업비 확대는 비용효과 악화
  - 공공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에서 사업비를 확대하는 것은 비용효과 악화 가능성
  - 적절한 수준의 공공의료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민간참여와 비영리적 유도 가능
-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 필요
  - 노인의료비 부담에 대한 사회적 대비 필요
  - 노인의료비 부담은 연금제도를 무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노인빈곤층 확산 주범
    - ※ 영국은 NHS라는 무상의료 제도로 인해 노인연금이 생계비로만 활용
- 경제악화에 대비, 공공의료의 역할 확대 요구
  -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WHO는 각국 정부에 저소득 계층의 건강과 의료이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함.
- 세계 주요 도시의 보건예산 비율(%)
  - 서울시보다 전부 높음

도쿄('11)	홍콩('12-'13)	싱가폴('12)	타이페이('12)	뉴욕('11)	서울('12)
7.5	16.9	4.7	2.4	2.3	1.3

### □ '13년 소요예산 : 총 132,784백만원

- 서울시 예산 중 보건의료예산 비중
  - 서울시 전체 19조 9,496억원(순계기준) 중 복지예산은 5조 1,658억원 (25.9%)
  - 서울시 예산중 보건의료 예산 '12년 2,666억원(1.3%) → '13년 3,553억원(1.8%)

○ 보건의료예산 중 건강서울 36.5 중점사업 예산 비중

- ‘12년 58,178백만원 → ’13년 132,784백만원(증 74,726백만원)

- 주요 핵심사업

- 서울형보건지소 확충 41,000백만원
- 필수 예방접종 무료 및 선택 예방접종 확대 27,531백만원
-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어르신 건강돌봄체계 8,200백만원
- 보호자 없는 병원 8,000백만원
-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 6,340백만원
- 시립병원 특성화 및 차별화 4,950백만원
- 아동치과 주치의제 3,399백만원

※ 서북권 종합병원, 동남권 노인병원 설립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

**보건예산 확대 방향**

○ 서울시 복지예산 확충 목표에 연동하여 보건예산 확충

- 전체예산 중 보건예산 비율 1.3%(‘12년) → 1.8%(’13년) → 2.3%(‘14년)

○ 서울시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한 사업예산 배정

- 중기 : 권역별 시립병원 설립은 우선적으로 ‘14년까지 설립의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추진
- 장기 : 사업안정화를 위한 평가 및 실적 모니터링

(단위 : 백만원)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1,591,641	268,068	299,360	309,430	340,373	374,410

**‘13년 예산 확보방안**

○ 서울시 예산 차원에서

- 복지건강실 내부에서 사업 조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보
- 사업을 중장기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
- 시의회와의 유기적 협조

- 사업 취지와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 및 보고
- 시설지원의 경우 자치구 소유 부지나 건물 활용등 유도

○ 민간 협력을 통한 예산 절감

- 의료생협, 민간의료기관과 협력, 유희 의료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市 예산 투입 최소화토록 노력
- 민간 자원봉사단체 및 의료기관 890개소, 20여개의 의료생협 등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하고, 25만 여명의 유희 의료인력 활용 등
- 사회적으로 의료안전망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참여와 협력을 유도
- 기부 활용

○ 중앙정부 및 타 기관과의 협력과 지원

- 우리시 시민건강정책 중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
- 서울시-국민건강보험공단 협의체 운영을 통한 사업 지원

## < 연차별 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계(2012~2014)	2012	2013	2014	비고
	<b>합 계</b>	<b>349,671</b>	<b>58,058</b>	<b>132,784</b>	<b>158,829</b>	
1	서울시민 건강관리서비스 실시	1,935	-	395	1,540	신규
2	시민건강 point 도입	3,100	-	1,600	1,500	신규
3	응급환자를 돕는 시민능력 향상	5,291	1,393	1,949	1,949	강화
4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2,552	2	1,290	1,260	강화
5	약국에서 건강관리 받으세요 - 건강증진협력약국	1,500	-	500	1,000	신규
6	영유아와 산모의 건강을 돌보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2,050	-	600	1,450	신규
7	아동치과주치의제 실시	14,534	1,475	3,399	9,660	신규
8	필수예방접종 무료 및 선택예방접종 확대	85,383	24,649	27,325	33,409	강화
9	토요일어린이건강클럽운영	2,664	882	882	900	강화
10	어린이 정신건강을 위한 '마음건강학교' 운영	3,860	660	1,200	2,000	강화
11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어르신 건강돌봄체계	25,100	3,100	8,200	13,800	신규
12	노인 구강건강 지원 서비스	2,898	1,170	889	839	신규
13	보호자 없는 병원	18,000	2,000	8,000	8,000	신규
14	마을 주민의 건강을 돌보는 서울형 보건지소	84,750	7,500	41,000	36,250	신규
15	야간휴일에도 의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5,910	2,000	6,340	7,570	신규
16	급할때 바로 연결되는 서울건강콜 서비스	2,675	675	1,000	1,000	신규
17	서울특화 응급진료센터 운영	800	-	400	400	신규
18	공공산후 조리원 설치·운영	5,925	-	3,604	2,321	신규
19	시립병원관리감독 시스템마련과 강화	4,750	750	2,000	2,000	강화
20	시립병원 공공의료 특성화 및 차별화	14,895	4,500	4,950	5,445	강화
21	시립병원 건강생활권역 인프라 확대	6,100	350	850	4,900	강화
22	공공의료인력 확보 및 역량강화	5,639	-	2,313	3,326	신규
23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835	255	280	300	강화
24	노인, 중증장애인에게 찾아가는 치과진료	2,922	892	980	1,050	강화
25	외국근로자 이주민 입원과 수술·자원에 기반한 통역서비스까지	4,716	1,466	1,600	1,650	강화
26	휴직퇴직 의료인의 '건강서울 36.5' 참여	20	-	10	10	신규
27	시민참여에 의한 지역건강네트워크 구축	600	-	200	400	신규
28	민간의료봉사단체 지원	600	100	200	300	강화
29	환자권리옴부즈만	300	-	150	150	신규
30	서울시민 건강회의개최	150	50	50	50	신규
31	건강마을, 건강도시	2,100	900	400	800	신규
32	암 없는 서울만들기	3,300	-	1,150	2,150	신규
33	신종플루, 조류독감, 결핵 등 감염병대응센터 설치운영	1,649	519	550	580	신규
34	인권피해자 치유센터(트라우마치유센터)운영	1,940	-	940	1,000	신규
35	함께 살아가는, 자살없는 서울	8,422	1,023	3,049	4,350	강화
36	금연을 지원하는 환경	2,567	632	965	970	강화
37	건강한 먹거리(채소과일늘리기와 나트륨줄이기사업)	4,595	445	1,360	2,790	강화
38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피해 절주운동으로 시민건강확보	1,500	-	1,000	500	강화
39	시민밀착형 신체활동 활성화 프로젝트	2,034	430	704	900	강화
40	의료비 부담해소를 위한 서울시국민건강보험공단 협업체 운영	150	-	150	-	신규
41	제3세계 의료지원	960	240	360	360	신규
42	서울시 의료급여 관리 및 개선	0	-	-	-	신규

- 건강서울 36.5추진을 위한 서울시 건강위원회 구성운영
  - 자문단, 지원단, 위원회 기능 통합·조정
  - 시 전반 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실시 노력
- 건강서울 36.5관리를 위한 사업평가시스템 마련운영
  - 서울시 보건정책관 및 보건소 조직 개편(안) 마련
- 건강서울 36.5 지속성과 실현 가능성을 위한 인력확보방안 수립
- 건강서울 36.5 통합 홍보계획 수립
- 각 사업부서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 사업별 표준지침 개발·보급